

팟캐스트 저널리즘의 가능성

‘지라시’ 아닌 ‘저널리즘’ 되려면… 콘텐츠 필터링이 최우선

정낙원 /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팟캐스트가 기성 언론의 대안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팟캐스트는 생산과 공유, 소비가 용이해지고 비디오와 1인 미디어 등의 콘텐츠 소비 트렌드와 만나며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경쟁 속에 뉴스 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것은 꽤 흥미로운 현상이다. 압도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팟캐스트 저널리즘이 가진 특별한 매력은 무엇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멀티미디어 플랫폼은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포맷의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마켓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텍스트와 비교해 팟캐스트처럼 차별적 특징을 가지는 오디오·비디오 콘텐츠가 주목받는 트렌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초기 팟캐스트는 오디오 콘텐츠였으나, 발전된 미디어 환경에서 대용량 콘텐츠의 생산, 공유, 소비가 용이해지면서 비디오로까지 포맷이 확장됐고, 최근 ‘1인 미디어’와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 트렌드까지 맞물리면서 대중화되고 있다. 영화, 음악, 생활정보, 성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가 경쟁하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팟캐스트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스 팟캐

스트 이용률은 다른 장르의 이용률보다 단연 높게 나타난다. 2017년 1월 팟빵의 조사(5점 척도)에서 ‘뉴스 및 시사·정치(4.22)’ 장르가 ‘도서·출판(2.19)’, ‘영화(2.14)’, ‘어학(1.88)’, ‘음악(1.80)’, ‘스포츠(1.61)’, ‘건강·의학(1.61)’보다 월등히 높았다. 《팟캐스트 저널리즘 연구》(이재국 외, 2018)에서도 팟캐스트 이용자의 73.3%가 뉴스 팟캐스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시사·정치 팟캐스트를 ‘자주 또는 가끔 이용’하는 응답자 비율이 72.8%로 다른 장르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팟캐스트는 이미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의 대중화를 이끈 것도 2012년 시사·정치 장르인 <나꼼수>였고, 최근까지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민 브리핑>, <새가 날아든다>,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청정구역>, <닥표간장>, <정치신세계> 등 시사·정치 장르 콘텐츠가 주요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인기 순위 상위권을 채우고 있다. 시사·정치 팟캐스트와 함께 <신과함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시황멘의 주식이야기> 등의 경제 뉴스 콘텐츠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비디오 콘텐츠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도 인기 영상 20~30%가 시사·정치 장르인 것으로 조사됐다(미디어오늘, 2018.11.6). 미국에서도 LA타임스의 <룸트웬티(Room20)>와 뉴욕타

[표 1] 팟캐스트 이용자의 장르별 이용률(‘가끔 이용한다’와 ‘자주 이용한다’의 합산 비율)

<출처 - 이재국 외, 《팟캐스트 저널리즘 연구》, 2018>

		시사/정치	음악	영화	경제	연예	교육/도서	건강/의학	스포츠
	전체	72.8	68.7	49.7	53.1	49.4	48.8	39.6	42.2
성별	남자	79.3	69.5	50.4	56.6	45.9	40.8	36.9	56.4
	여자	66.0	67.8	49.0	49.4	53.1	57.2	42.4	27.3
연령	20대	57.5	71.7	50.2	38.4	58.4	51.1	26.9	46.6
	30대	65.4	68.8	50.2	51.9	51.1	52.8	34.6	39.0
	40대	81.2	65.0	45.8	59.2	44.0	49.5	39.0	37.9
	50대	82.8	70.0	52.7	59.7	46.2	42.9	54.6	45.8
	고졸 이하	76.1	72.7	51.1	65.9	50.0	38.6	58.0	38.6
학력	대학 재학(전문대 재학 포함)	58.8	72.9	52.9	34.1	54.1	48.2	20.0	52.9
	대학 졸업(전문대 졸업 포함)	73.3	68.0	48.9	54.1	49.4	49.9	39.5	41.5
	대학원재학 이상	77.2	66.7	51.2	51.2	45.5	50.4	40.7	41.5
	자영업	72.0	73.3	58.7	60.0	48.0	40.0	45.3	37.3
직업	블루칼라	77.6	75.3	52.9	55.3	51.8	47.1	45.9	40.0
	화이트칼라	75.5	66.8	47.9	54.1	47.7	48.6	40.0	44.0
	가정주부	69.4	73.5	49.0	64.3	50.0	59.2	55.1	26.5
	학생	61.2	71.8	52.9	37.6	55.3	48.2	18.8	52.9
	기타/무직	62.5	60.9	48.4	35.9	54.7	48.4	25.0	43.8
정치적 성향	보수	64.3	67.4	48.8	51.9	48.8	40.3	39.5	51.9
	중도	65.5	71.3	51.6	52.6	53.2	49.4	42.6	45.2
	진보	78.8	67.6	48.8	53.7	47.4	50.4	38.0	38.3

임스의 <더 데일리(The Daily)>를 비롯해 <시리얼(Serial)>, <디 어메리칸 라이프(The American Life)>, <업 퍼스트(Up first)>등의 저널리즘 팟캐스트가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다.

뉴스 팟캐스트가 지닌 독특한 매력

뉴스 팟캐스트는 기존 뉴스 콘텐츠와 비교해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제도권 언론의 뉴스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규범적 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절제된 표현과 정형화된 형식으로 비판적, 해석적 전달보다는 팩트 위주의 사실 전달 기능이 두드러진다. 반면, 뉴스 팟캐스트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 일상적 담화로

무거운 시사·정치 이슈를 재미있고 편안하게 풀어낸다. 정보 콘텐츠지만 진행자의 개성, 유머와 해학이 곁들여지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가미돼 지루하지 않다. 기성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배경 정보, 뒷얘기와 함께 복잡한 시사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적이고 심층적으로 풀어낸다는 점도 뉴스 팟캐스트의 매력이다.

뉴스 팟캐스트는 대안 저널리즘 미디어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이명박 정부 말기에 정치권과 기성 언론의 비리와 부도덕성을 거리낌 없이 날카롭게 비판한 <나꼼수>가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언론의 보수 성향이 이어진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진보 성향의 시민들은 팟캐스트

“

팟캐스트 저널리즘의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
통신 서비스와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용이한 기술적 환경이
구축됐고,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이
등장하여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이 가능한
미디어 환경이 조성됐다. 팟캐스트는 시민의
자유로운 언로이며 참여 공간으로서 소통의
채널이 되고 참여 시민을 양산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

예 귀를 기울이며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극우 성향의 시민들은 유튜브 채널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구독자 수 기준 상위 10개 채널 중 9개가 보수 채널일 정도로 유튜브는 보수 성향의 대안 미디어로 굳어지고 있다. 팟캐스트는 시민 저널리즘이 구현되는 채널이기도 하다. 팟캐스트 플랫폼은 누구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오디오 및 비디오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쉽게 팟캐스트를 제작할 수 있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사용해 간단하게 콘텐츠를 올리고 송출할 수 있다. 제작의 간편성, 플랫폼의 개방성 및 상호작용성 등은 팟캐스트를 시민의 언로(言路)로서 기능하게 하는 특징이다. <나꼼수>를 비롯해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많은 뉴스 팟캐스트는 제도권 언론이 아닌 시민 저널리즘으로 출발했다. 뉴스 팟캐스트 제작에 참여하는 직장인, 학생들, 가정주부 등 일반 시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기성 언론의 뉴스 소재가 되기도 한다. 팟캐스트의 또 다른 장점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이다. 초고속 무선통신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팟캐스트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이재국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까닭에 대해서 ‘언제든 이용 가능(82.8%)’하고 ‘어디서든 이용 가능(78.2%)’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국 뉴스 팟캐스트는 자유롭고 친근한 형식, 흥미와 해학, 해석적 기능, 자유로운 비판적 시각, 이용 편리성이라는 차별성을 가지며 기성 언론의 대안 미디어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팟캐스트 저널리즘의 성장 동력

팟캐스트 저널리즘의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 통신 서비스와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용이한 기술적 환경이 구축됐고,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이 등장하여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이 가능한 미디어 환경이 조성됐다. 흥미성, 심층성, 편안하고 자유로운 스토리텔링 양식 등 기성 언론과 대비되는 뉴스 팟캐스트의 차별적 속성은 이용자들에게 대안 미디어로서 꽤 매력적이다. 팟캐스트는 시민의 자유로운 언로이며 참여 공간으로서 소통의 채널이 되고 참여 시민을 양산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뉴스 팟캐스트 이용자들도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8)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팟캐스트를 이용’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58%로 절반 이상이 팟캐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0%가 뉴스 팟캐스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재국 외(2018)의 연구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 뉴스 팟캐스트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4%에 달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여성 이용자(68.2%), 50대(81.7%), 고졸 이하(73.9%) 집단에서도 높은 이용

[표 2] 팟캐스트 이용자들의 미디어 신뢰도

<출처 - 이재국 외, 《팟캐스트 저널리즘 연구》, 2018>

	믿을만하다	공정하다	정확하다	심층적이다
뉴스 팟캐스트	3.43	3.15	3.31	3.60
종이신문	2.79	2.57	2.76	2.86
TV 뉴스	3.08	2.85	3.03	2.99
인터넷 뉴스	2.63	2.54	2.60	2.70
소셜미디어 뉴스	2.47	2.40	2.47	2.50

률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뉴스 팟캐스트는 ‘믿을만하다’, ‘공정하다’, ‘정확하다’, ‘심층적이다’ 네 가지 항목에서 모두 종이신문, TV 뉴스, 인터넷 뉴스, 소셜미디어 뉴스의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팟캐스트의 잠재력과 영향력은 정치인들과 기성 언론사들을 팟캐스트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다. 정치인들과 평론가들은 팟캐스트를 제작하거나 패널로 참여하면서 이용자들과의 소통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언론사들은 정규 뉴스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로 재생산하고 있으며, 언론사나 기자 개인이 순수 팟캐스트용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주)팟빵의 팟빵, NHN엔터테인먼트의 팟티, 네이버의 오디오클립 등 팟캐스트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 의지도 팟캐스트 저널리즘의 성장 동력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민들

팟캐스트 저널리즘의 양적 성장을 위한 기반은 갖춰진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팟캐스트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팟캐스

트 제작자들은 영세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다. 과거에 비해 팟캐스트 제작비용이 크게 감소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제작 공간, 장비, 비용이 부족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도 전에 제작을 중단하곤 한다. 정부는 공적 가치가 높은 팟캐스트를 선정해 포상·지원하고, 최신 장비를 갖춘 제작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과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제작 관련법 교육 및 자문 등을 제공해 제작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형 팟캐스트 플랫폼 운영이 점차 폐쇄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초기 팟캐스트 플랫폼들은 호스팅과 콘텐츠 유통을 분리해 호스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팟캐스트는 콘텐츠가 어느 서버에 호스팅됐는지에 관계없이 RSS피드를 받아 자유롭게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개방적 성격을 띠었다. 그런데 최근 팟캐스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대형 팟캐스트 플랫폼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호스팅된 콘텐츠만 공유하는 폐쇄적 운영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콘텐츠 호스팅과 출판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고 내부적으로 수익배분 계산을 쉽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내부 서버에 호스팅된 콘텐츠는 외부 플랫폼에 공개할 수 없고, 외부 서버에 호스팅된 콘텐츠는 내부 플랫폼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막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산, 소비, 유통이 일어나야 할 플랫폼의 장점을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방식의 운영이 확산되면 플랫폼마다 콘텐츠가 배타적으로 호스팅돼 소규모 플랫폼과 후발 사업자가 살아남기 어렵다. 또 이용자들이 분산돼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팟캐스트가 '질적 성장'을 이뤄내려면

팟캐스트 저널리즘의 '질적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담긴 콘텐츠 필터링이다. 현재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유튜브를 비롯한 팟캐스트가 가짜뉴스의 유포, 확대 재생산의 진원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가짜뉴스 콘텐츠는 점점 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 조작하기 때문에 구분하기조차 힘들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 국민의 76%가 '가짜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 볼 때도 가짜로 의심'(한국언론진흥재단, 2017)하는 지경이 됐다. 또한 일부 콘텐츠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적 비하, 편웨이 표현과 차별, 혐오 발언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팟캐스트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에 뿌려지는 독이다. 이는 중오심, 분노,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더 폭력적인 콘텐츠가 양산되는 악순환을 야기해 사회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한다.

그동안 팟캐스트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참여 시민을 길러내는 건전한 뉴스 미디어로서의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왜곡된 자유를 앞세운 방종과 일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팟캐스

트는 머지않아 지라시 유통 채널로 전락해 결국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현재 팟캐스트는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사회적 감시가 절실하다.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팟캐스트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플랫폼의 적극적인 자체 규제 노력과 사회적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늘려 해악 콘텐츠와 제작자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제작자 교육을 통해 건전한 저널리즘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팟캐스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조직해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팟캐스트 콘텐츠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팟캐스트는 여러 장르의 콘텐츠가 자유 경쟁하는 개방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점령되지 않고 시민의식의 산물로, 유익한 저널리즘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지켜왔다. 지금 팟캐스트는 성숙한 언론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것인지 극단적 집단의 놀이터가 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

참고문헌

-
- 금준경, <유튜브 인기 영상 3건 중 1건이 정치·시사>, 미디어오늘, 2018.11.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362>
 - 김위근·김선희, <2018년 한국 디지털 뉴스 지형을 읽는 7개 지표>, 미디어이슈 4권 6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 오세욱·박아린,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미디어이슈 3권 3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 이재국·이창호·정낙원·진보래, <팟캐스트 저널리즘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